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청소년 돕기 캠페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박해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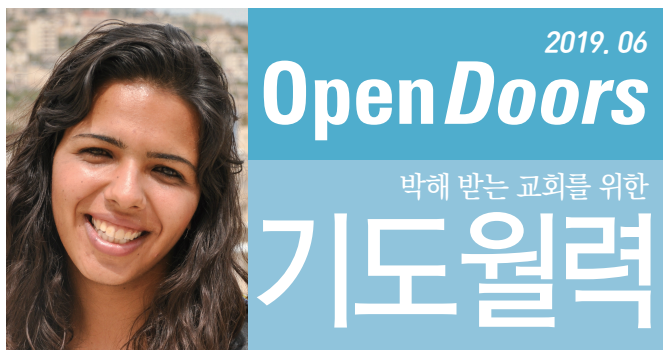
아이들을 위한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 ▶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 ▶ 부모의 희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 145:1)

1일(토) 북한(North Korea)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3명의 딸과 함께 탈북하여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성도가 북한에 남아 있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곧 응답받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탈북한 가족을 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기도해주세요.

2일(일) 북한(North Korea)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최소 12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극도의 인권탄압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며 노인에서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선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시아(Asia)

3일(월) 중국(China)

위구르(Uyghur) 민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는 있으며 재교육 캠프에는 5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이 강제 수

용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배경의 목사 중 일부가 수용소에서 풀려나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들이 신자들과 재회하고 격려할 때 위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일(화) 인도(India)

박해 사건 10건 중에 1건만 세상에 알려지고 나머지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인도 전역에 걸쳐 오픈도어 사역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박해 대비훈련을 통해 인도의 신자들이 박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 인도 형제자매들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과 격려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5일(수) 인도(India)

비나(Beena)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힌두교 이웃들이 공동체의 전통 신앙을 떠났다고 비나의 남편을 역사시키려 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마을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친척들과 함께 머무는 또 다른 아들과 딸도 있습니다. 비나는 주님께서 가족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6일(목) 인도네시아(Indonesia)

목회자 사모인 나오미(Naomi)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그들 중 80%는 무슬림 배경 출신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증언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오미처럼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7일(금) 말레이시아(Malaysia)

말레이시아의 무슬림은 6월 5-6일 이틀 동안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라마단 금식 후 축제)를 기념합니다. 이 기간에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슬림 친구들과 이웃들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이날을 기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법을 어기지 않고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8일(토) 브루나이(Brunei)

브루나이의 교회는 4월 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샤리아(Shariah) 법을 따라 살고 있고, 이 법은 간통죄로 돌팔매질을 하거나 절도죄로 팔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중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술탄(Sultan)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는 이러한 법을 뒤집고 브루나이를 이전의 위치로 되돌려 놓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9일(일) 방글라데시(Bangladesh)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도들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 라마단 한 달 금식 후 기념하는 축제인 '이드 알피트르'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게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이 축제가 신자들에 대한 폭력 없이 평화롭게 거행되기를 기도해주세요.

10일(월) 방글라데시(Bangladesh)

차크마(Chakma)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지난 4월 18일 심야에 불교도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쳐 집과 재산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오픈도어의 사회경제 지원으로 운영하던 소규모 가게도 방화로 전소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신자들은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 소외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계속 강요당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1일(화) 몰디브(Maldives)

한 신자는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면 조국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몰디브 신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내용은 부분뿐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과 은총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 전체가 모두 번역되도록 기도해주세요.

12일(수) 남부 필리핀(Southern Philippines)

시타(Cita)는 최근 세례를 통해 예수를 자신의 주이자 구주로 선포한 남부 필리핀 출신의 신자입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도, 주께서는 이미 우리 집안에서 힘 있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작은 가게만 있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부디 그녀의 가족도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주세요.

13일(목) 미얀마(Myanmar)

아편과 대마초 같은 마약과 술이 미얀마 전역의 젊은 세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끝나지 않는 내전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가중시킵니다. 오픈도어의 사역자들은 미얀마 젊은이들이 마약 남용 문제를 알고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얀마에서 젊은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이 청소년 훈련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해주세요.

14일(금) 부탄(Bhutan)

부탄에서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격려하는 박해 대비 훈련을 행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훈련은 목회자들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영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불교의 탄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부탄의 신자들이 성경을 통한 박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5일(토) 스리랑카(Sri Lanka)

지난 4월 부활절 테러로 인해 2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되고 교회와 호텔을 포함해 8곳이 테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아직도 테러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보복 테러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속히 교회와 피해자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복음의 정체성으로 교회와 신자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세요.

16일(일) 스리랑카(Sri Lanka)

스리랑카 목회자들은 종종 모욕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족, 교회에 평화와 보호를 가져다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스리랑카에서 열린 오픈도어의 사회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들이 참가자들과 그들의 가족, 교회, 그리고 국가에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중동(Middle East)

17일(월) 시리아(Syria)

시리아의 주요 도시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와 혼란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어린시절의 순수함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시리아에 있는 교회가 빛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하여 시리아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18일(화) 이란(Iran)

이란의 경제 상황의 악화가 생필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신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 나라에 심각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또한 핵개발로 인해 미국과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어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19일(수) 이라크(Iraq)

나라의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라크인들이 최근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40여 년 동안 평화와 평안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하시고, 이 나라에 남아 있는 공동체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일(목) 아라비아반도(Arabian Peninsula)

성도들의 공동체가 기도와 단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들이 다른 장소에 정기적으로 다른 신도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성도들이 자신의 간증을 쓰고 다른 성도들과 공유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1일(금) 예멘(Yemen)

서구 국가들에서 온 아이들, 심지어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중동 국가들에서 온 많은 아이들은 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멘 아이들은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

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믿음과 진리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2일(토)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Israel & Palestine)

다양한 곳에서 끊임없이 탄압을 받는 상황 속에 있는 목회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성령으로 위로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23일(일)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한 형제가 사우디에서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물리적으로 죄수들 사이에 많은 괴롭힘과 서열상의 학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석방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24일(월) 레바논(Lebanon)

난민 수가 지역 주민보다 많은 마을이 꽤 있습니다. 때로는 두 배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삶이 더 나아지고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위화감이 멈추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가 핵심 임무를 수행하여 같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미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5일(화) 에리트레아(Eritrea)

5월 10일에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수도 아스마라(Asmara)에서 131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104명의 기독교 여성과 13명의 남성 그리고 14명의 미성년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어린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안전을 염려됩니다.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6일(수) 나이지리아(Nigeria)

지난 4월 부활절 주일 직전에 나이지리아 감베(Gambe) 주에서 무슬림 청년들은 차량에 탑승한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총격이 난사했고 기독교인 13명의 청소년들이 숨지고 3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테러처럼 국제적인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남겨진 교회와 유족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7일(목) 에티오피아(Ethiopia)

에티오피아 남부에 사는 20세의 대학 졸업자인 아베베는 15세 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녀의 개종 후 아버지는 여러 번 이슬람교로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픈도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비롯한 14명의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그들의 사업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불신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이 용감하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8일(금) 코티드부아르(Cote d'Ivoire)

28세 기예만은 2018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슬람교와 이교도 집안의 온갖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욕, 저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그의 가족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세요.

29일(토) 감비아(Gambia)

유수파는 기독교인이지만 그의 대가족은 무슬림입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이후 무슬림인 삼촌은 집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고 무슬림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수파와 그의 가족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박해자들이 그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0일(일) 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현장에서 사역하는 박해받는 교회의 사역자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또한 후방에서 재정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과 지혜가 충만하여 민첩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더욱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주시요.

